

전남도청 여자 펜싱 '전국 찌르다'

대통령배 전국대회, 유단우 에페 우승 등 금메달 2·동 1개 획득

전남도청 여자 펜싱팀이 대통령배 전국대회에서 금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를 따냈다.

전남도청 펜싱팀은 최근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제61회 대통령배 전국남녀펜싱선수권대회 겸 국가대표선수 선발대회에서 에페 개인, 단체전을 석권했다.

유단우가 여자일부 에페 개인전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도청 팀은 에페 단체전 우승, 사브르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박소형·유진실·김향은·김시은이 출전한 에페팀은 단체전 준결승에서 계통시청을 45-30으로 완파하고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에서는 광주시 서구청을 상대로 43-42 한점차 짜릿한 승리를 거두며 우승을 차지했다.

유단우는 에페 개인전 4강에서 도쿄올림픽 여자 에페 단체전 은메달리스트 강영미(광주시 서구청)를 15-10으로 제압하고 결승에 올라, 결승에서 이신희(강원도청)를 15-14로 꺾으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손정민·김지현·최세빈·박다은이 출전한 사브르팀은 단체전 8강에서 대전시청을 45-44로 꺾고 4강에 진출해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준결승에서 안산시청에 38-45로 아쉽게 패해 3위로 대회를 마감했다.



제61회 대통령배 전국남녀펜싱선수권대회에서 선전한 전남도청 여자 펜싱팀. <전남도체육회 제공>

한편, 남자 사브르 개인전에서는 도쿄올림픽에서 남자 펜싱 2연패를 달성한 '어벤져스팀'의 맞대결이 이어졌다.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김정환은 남자 사브르 개인전 결승에서 오상욱(성남시청)을 15-8로 꺾고 우승을, 구본길은 4강에서 오상욱에 8-15로 패하면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전남 연고팀이다.

전남도청 펜싱팀 김용을 감독은 "올림픽으로 펜싱에 대한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이번 대회에서 에페와 사브르 모두 좋은 성적을 거두 기쁘다"며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전국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 남은 기간 선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여기는 도쿄

"휠체어 농구 대부, 故 한사현 감독께 메달 바친다"

21년만의 본선 무대 남자 농구 오늘 스페인과 조별리그 첫 대결

한국 남자 휠체어농구 대표팀은 25일 오후 8시 30분 일본 도쿄의 무사시노노모리 종합 스포츠 플라자에서 스페인과 2020 도쿄 패럴림픽 조별리그 A조 첫 경기를 치른다.

2000년 시드니 대회 이후 한국 농구가 패럴림픽 본선 무대에 진출한 건 21년 만이다.

꿈에 그리던 무대를 밟게 된 대표팀 선수들에게는 반드시 좋은 성적표를 들고 돌아가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대표팀을 이끌던 고(故) 한사현 전 감독이 지난해 9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여파로 대회가 한 해 미뤄지면서, 한사현 전 감독은 선수들이 패럴림픽에서 코트를 누비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한 전 감독을 기억하며, 선수들은 감독님의 영전에 메달을 바치겠다는 각오로 훈련에 임해 왔다.

한국이 20년 만에 패럴림픽 출전권을 따내는 데도 국내 휠체어 농구의 대부인 한 전 감독의 지도력은 큰 비중을 차지했다.

6세 때 소아마비로 장애를 갖게 된 그는 1984년 휠체어농구를 시작했고, 1991년부터 국가대표로 활약하며 2000 시드니 패럴림픽 본선 무대를 밟았다.

은퇴 후 지도자의 길을 밟아 2010년부터 대표팀을 이끌었고, 2014년 인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사상 첫 8강 진출(6위)도 일궜다.

선수들은 다독이며 꾸준히 전력을 끌어올린 끝에, 한국은 2019년 12월 국제휠체어농구연맹(IWBF) 아시아-오세아니아 챔피언십에서 준우승을 거두며 20년 만에 패럴림픽 출전권을 따냈다.

대표팀 선수들은 패럴림픽을 준비하는 내내 한 전 감독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17일 경기도 이천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훈련원에서 휠체어 농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2020 도쿄패럴림픽을 앞두고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장인 조승현(38·춘천시장애인체육회)은 "감독님이 안 계시니 마음이 무겁다. 그래도 주장으로서 감독님이 원하시던 '우리는 하나'라는 마음으로 이기든 지든 부딪쳐 보겠다"며 진심을 밝히고는 "지금도 하늘에서 보고 계시실 것이다. 감독님의 농구 DNA를 코트에서 펼칠 수 있게 도와주실 거라 믿는다"고 힘줘 말했다.

한국은 스페인, 캐나다, 터키, 콜롬비아, 일본과 A조에서 조별리그를 치른다. 조 4위 안에 들면 8강에 진출할 수 있다.

첫 상대인 스페인은 2016년 리우 패럴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강팀이다.

김영무(43) 대표팀 코치도 "우선 8강 진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8강에 진출하면 4강도 넘볼 수

있다. 인천 세계선수권에서 거둔 6위를 넘어서고 싶다"며 "스페인인 전통적인 강호이고 국제무대에서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 우리가 열세인 것은 분명하지만, 경기 당일 슛 컨디션과 정신력이 좋다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코치는 한 전 감독과 과거 대표팀과 서울시청에서 선수, 지도자로 한솥밥을 먹은 사이다.

그는 "도쿄 패럴림픽 때문에 치료까지 포기하면서 생의 마지막까지 농구 열정을 불태웠던 한 전 감독님 기일이 9월 26일이다. 마음 같아선 메달을 들고 선수들과 함께 찾아뵙고 싶지만, 최소한 한 전 감독님이 이루었던 성과(세계 6위)는 꼭 넘어서

'수고했고 고맙다'란 말을 듣고 싶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US오픈 테니스 총상금 674억원

1회전 탈락해도 8800만원...한국 권순우 출전

오는 30일 미국 뉴욕에서 개막하는 US오픈 테니스 대회에서는 남녀 단식 본선 1회전에서 탈락해도 상금 7만5000 달러(약 8800만원)를 받는다.

미국테니스협회는 24일(한국시간) 올해 US오픈의 상금 규모를 발표했다.

총상금 규모는 5750만 달러, 한국 돈으로 674억원으로 2019년 5720만 달러, 2020년 5340만 달러보다 늘었다.

그러나 남녀 단식 우승 상금은 250만 달러, 29억3000만원으로 지난해 300만 달러보다 줄었다. 이는 2012년 190만 달러 이후 최소 금액이다.

단식 본선 1회전 탈락 선수에게 주는 상금은 2019년 5만8000 달러, 지난해 6만1000 달러에

서 올해 7만5000 달러로 증가했다. 올해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US오픈은 30일 미국 뉴욕에서 개막한다.

남자 단식의 노바크 조코비치(1위·세르비아)가 우승하면 올해 4대 메이저 대회인 호주오픈, 프랑스오픈, 윌리엄스, US오픈 단식을 석권하는 '캘린더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다.

한 해에 4대 메이저 단식을 휩쓰는 '캘린더 그랜드 슬램'은 남자부에서 1938년 돈 버지(미국), 1962년과 1969년 로드 레이버(호주)가 기록했고, 여자부는 1953년 모린 코널리(미국)를 시작으로 1970년 마거릿 코트(호주), 1988년 슈테피 그라프(독일)가 대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올해 US오픈에 한국 선수로는 권순우(74위·당진시청)가 출전한다. /연합뉴스



광주 노영진 생애 첫 메달 꿈 '무산'

건강문제로 귀국...한국 보치아 9연패 '빨간불'

생애 첫 패럴림픽 대회에서 금메달 획득을 꿈꾸던 보치아 대표팀의 노영진(28·광주시 장애인체육회·사진)이 건강 문제로 대회에 나설 수 없게 됐다.

노영진은 광주가 최초로 배출한 보치아 국가대표 선수로, 이번 대회에서 메달 획득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으나 꿈을 다음으로 미루게 됐다.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은 24일 한국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 현지에서 대회를 준비하던 노영진이 건강 문제로 이날 귀국하게 됐다고 전했다.

21일 결전지인 일본에 입성한 노영진은 2020 도쿄 패럴림픽에서 보치아 BC1 개인전과 BC1·2 단체전에 출전할 예정이었다.

보치아는 한국 장애인 체육의 '효자 종목'으로, 이번 대회에서도 많은 기대를 받는 종목이다.

한국 보치아는 1988년 서울 패럴림픽부터 2016년 리우 대회까지 8개 대회 연속 금메달을 획득했고, 이번 대회에서 9연패에 도전한다.

도쿄에서 패럴림픽 무대에 데뷔하려 했던 노영진도 같은 목표를 가지고 달려왔으나, 안타깝게도 대회에 나서지 못한 채 개막식이 열리는 날 귀국하게 됐다.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노영진은 최근 전신 근력이 약화하는 증상을 보였고, 22일 해당 증상과 관련해 팀닥터가 진료한 뒤 패럴림픽 선수촌 내 폴리 클리닉에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척추 전방부에서 물혹이 발견됐고, 경추 디스크 돌출도 확인됐다.

장애인체육회는 응급상황을 예방하고 근력 기능 저하에 따른 추가 부상을 막기 위해 선수와 담당 코치의 귀국을 결정했다.

노영진이 강한 출전 의지를 보였지만, 임팩트 보치아 대표팀 감독이 "건강 회복 후 선수 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게 좋다"며 설득에 나섰고 24일



오후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노영진은 2019 두바이지역오픈대회에서 개인전과 단체전 2관왕에 오른 바 있다. 같은 해 서울 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선수권대회에서는 개인 1위, 단체 2위의 성적을 올려 메달 유망주로 주목받았다. /윤영기 기자 penfoot@연합뉴스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LOTTE CINEMA | 총장로관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즐거움 문화산책



-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인질
 - 2관 인질
 - 3관 싱크홀
 - 4관 인질
 - 5관 레미니센스
 - 6관 싱크홀
 - 9관 모가디슈
 - 7관 씨네커풀 싱크홀, 귀문
 - 8관 씨네커풀 귀문, 울드, 여름날 우리

광주시립극단 기획공연
제1회 창작희곡공모 당선작 낭독공연
양림

일시 : 2021. 08. 30(월) 16:00, 19:3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511-2759

GAC 11시 음악산책 5
조진주, 소리너머

일시 : 2021. 08. 25(수) 11: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2

